

“5·18 3법 통과 환영...왜곡된 과거 딛고 미래로”

이주민 토론회·시민집담회 등 향후 과제 모색 행사 잇따라

‘5·18 3법’(민주화운동 특별법·진상규명 특별법·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5월 단체들과 광주시민사회가 일제히 환영하는 한편 40주년 이후의 5·18을 준비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가졌다.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이 끝나는 시점에 이후 항쟁의 의미와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행사들이 개최된 것이다.

5월 단체(5·18 기념재단·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10일 오후 5·18기념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 3법 국회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5·18 왜곡에 앞장서며 망언을 일삼았던 지만원씨 등에 대한 마땅한 처벌 근거가 없었지만, 이번 3법 통과를 계기로 왜곡·뺨뺨세력들은 잘못된 행동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광주 시민단체협의회도 “3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명실공히 5·18항쟁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의 마중물이 되었음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논평을 내놨다.

10일 하루에만 5·18관련 행사들이 전일빌딩 245, 5·18민주화운동 기록관, 5·18기념재단 등 3곳에서 동시에 열렸다.

광주국인인권단체 다문화평화교육연구소는 10일 오후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에서 ‘이주민 공동체와 함께하는 5·18민주화운동’을 주제로 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는 광주에 거주하는 이주민이 바라본 5·18민주화운동과 이들이 이해하는 광주정신을 서로 공유하는 자리였다.

22번째 광주에서 살고 있다는 메리암 디비나그라시아 마뉴엘(필리핀)씨는 발표에서 “5·18을 보면 1965년부터 21년간 마르코스 독재정권을 거친 필리핀이 생긴다”면서 “당시 필리핀도 정권에 반대한 사람들이 체포되고 많은 시민들이 살해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필리핀도 1986년 반정부 시위가 일어나며 민주적으로 대통령을 뽑고 있다”며 “5·18과 한국 사례를 보면 시민들이 깨어있어야 한다는 것을 느낀다.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것도 바뀌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스리랑카에서 온 이주노동자인 파티키리 코랄라라게 나아나씨는 “스리랑카는 종교분쟁으로 인해 1970년대 내전이 발생했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면서 “아침에 거리에 나가면 참수당한 주검들이 거리에 널려 있는 모습도 봤다”고 자신의 고향에 대한 소감을 했다.

이어 “하지만 스리랑카는 5·18처럼 아직도 많은 주검을 찾지 못했고, 발표명령자 등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5·18이 보여준 소중한 가치를 모국에 반드시 알려주고 싶다”고 발표했다.

같은 시간 광주시 동구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



10일 오후 광주시 서구 5·18기념재단에서 5월단체(5·18기념재단·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대표들이 5·18 3법 국회 통과와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서는 ‘오향고(5·18민중항쟁 고등학교 동지회)가 바라본 세상, 꿈꾸던 세상’이라는 시민집담회가 진행됐다.

집담회에는 고교생 신분으로 1980년 5월 27일 옛 전남도청 진압작전 때 YWCA에서 마지막까지 저항하다 계엄군에 붙잡힌 김향득 사진작가가 사라져가는 5·18사적지를 사진 기록으로 남기고 자신의 사연을 소개했다. 김 작가 이외에도 5·18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9명이 발표자로 나서 그들이 겪은 5·18 당시 비극적인 이야기와 그 이후 삶에 대해 발표했다.

18 당시 비극적인 이야기와 그 이후 삶에 대해 발표했다.

광주시 서구 5·18기념재단에서도 ‘5·18 사적지 보존과 활용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가 열렸다.

광주시와 전남도를 비롯한 자치구 실무자들이 그동안 미비했던 부분을 공유하고, 각 자치구의 40주년 이후 사적지 활용 계획을 공유하며 5·18 사적지의 활용 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글·사진·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13일 첫눈 온다

광주·전남 14일부터 기온 ‘뚝’

이번 주말 광주·전남지역에 올해 첫눈이 내리는 등 본격 추위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10일 “중국 산둥반도 부근에서 동진하는 차가운 대륙 고기압의 영향을 차차 받아 13일 오후부터 광주·전남지역에 눈이 예상된다”고 예측했다.

기상청은 기압골의 발달과 찬 기류의 남하 정도에 따라 눈이 내리는 시점과 지역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겠지만 전남서해안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내다봤으며 눈은, 15일 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11일과 12일 최저기온은 0~6도, 최고기온은 9~14도 분포를 보이겠지만 눈이 예보된 13일 최저기온이 영하 2도~영상 4도 분포 보이는 등 추위다가 월요일인 14일부터는 최고기온이 0도 안팎에 머무르는 등 추운 날씨가 예상된다.

기상청 관계자는 “14일부터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하기 바라며, 13일부터 15일 사이 서해남부해상과 남해 서부해상에서 물결이 2~4m로 높게 일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남대에 실험동물센터 건립

전남대학교에 실험동물센터가 들어선다.

지난 2017년 정병석 전남대 총장의 발의로 시작된 실험동물센터 건립은 관련 예산이 지난 12월 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에 전남대를 비롯해 전북대, 경북대, 부산대 등 4개 대학에 들어설 예정이다. 각 대학에는 약 160억원 씩 지원될 것으로 보인다.

동물실험시설은 의료바이오 분야 교육에 필요한 핵심시설이자, 신약개발·의료기기 개발 등 의료산업화를 위한 필수연구시설이나, 그동안 이들 대학은 예산 부족으로 이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못한 채 열악한 환경 속에서 동물사육과 실험을 진행해 왔다.

더구나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적 기준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관련 법령까지 강화되는 등 실험동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감대가 확산되면서 전문시설을 갖춘 실험동물센터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정병석 전남대 총장은 “교육부를 비롯한 여러 기관의 협조와 공감으로 실험동물센터를 건립할 수 있게 됐다”며 “우수한 환경에서 교육과 연구가 가능해진 것은 물론 지역 바이오분야 R&D 및 산업화에 필요한 핵심 역할을 해 줄 것”으로 기대했다.

/채희종 기자 chae@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전남 농산어촌 통합학교 내년 시범 운영

전남교육청 ‘함께 크는 아이들...’ 3대 목표 선정

전남교육청이 새해부터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의 교육력을 강화, 학생인구 감소와 미래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미래형 통합운영학교’를 본격 추진한다.

전남도교육청은 10일 비대면 정책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정 ‘미래형 통합운영학교 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도 교육청은 통합운영학교 안착을 목표로 3단계 추진 전략을 세웠다. 1단계(2020~2021년)에는 통합운영학교 추진을 위한 교육공동체 공감대 형성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2단계(2020~2024년)로는 유형별 특화 모델을 창출해 실질적인 지정과 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3단계(2025년 이후)에는 성공모델을 확산하고, 통합운영학교가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도 교육청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 조직으로 ‘그린 스마트 미래학교 추진단’을 오는 2021년 1월 신설해 통합운영학교 선정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추진할 방침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 ‘힐링필사’ 결과물 전시 13일까지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관장 장문수)이 코로나 19로 힘겨웠던 올 한 해를 마감하는 ‘힐링필사 결과물 및 크리스마스 관련 도서 전시회’를 오는 13일까지 개최한다.

앞서 10~11월 열린 ‘힐링필사’ 독서행사에 지역민 50여 명이 참여했다. 데미안과 어린왕자 등 6종의 선정도서에서 기억하고 싶은 글귀를 적으며 ‘독서-필사-힐링’으로 이어지는 체험활동을 진행했다.

체험활동 결과 제출된 필사책은 필사와 함께 알록달록 색 펜으로 그린 그림 및 단풍잎, 스티커 등으로 꾸미는 등 참가자들의 개성이 표현됐다. 완성된 각자의 필사책은 전시가 끝난 본인이 소장하게 된다.

광주학생교육문화회관은 ‘크리스마스 관련 도서’ 50여 점도 함께 전시해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대성 기자 bigkim@

명진고, 끝나지 않은 보복

복직 교사에 “내년 2월까지 도서관 근무” 지시 논란 “학생들 뭘 배울까” 비난 여론...교사노조, 인권위 진정

‘보복 해임’으로 감사를 받는 광주 명진고(학교법인 도연학원)가 복직한 손규대 교사에 대한 ‘뒤집 채우’로 비난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학교 측이 해당 교사에게 ‘도서관 자율연수’를 하도록 해 다시 논란에 휩싸였다.

10일 광주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명진고 측은 9일자로 복직한 손 교사에 대해 이날부터 내년 2월 말까지 광주 송정도서관에서 자율연수하도록 명했다.

자율연수는 학교장 재량으로 내년 개학을 앞두고 도서관에서 수업 준비를 하는 것으로서 법과 규정상 문제는 없다.

이번 처분과 관련 명진고 측은 “기존 대체 교사가 학기 말까지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점, 교사가 과원인 점, 시 교육청 공문 등의 내용을 토대로 자율연수를 지시했다. 자율연수가 끝나는 내년 3월 손 교사는 학교에서 수업을 할 것이다. 지원실에 일시 대기 장소를 마련한 것 뿐이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를 두고 교육계에서는 학교 측이

자율연수라는 미명하에 ‘손 교사 거러두기’를 하고 있다며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는 “교육자들이 저러는 데 학생들이 무슨 교육이 될까”, “애들한테는 사이 좋게 지내라고 하고 정작 선생들끼리는 왕따야. 아주 참교육이네. 애들이 보고 무엇을 배우겠느냐”는 등 학교 측을 비난하는 글들이 잇따르고 있다.

앞서 학교 측은 손 교사의 첫 출근날인 지난 9일 손 교사에 대해 교무실이 아닌 통합지원실에 마련된 학생 책상에 앉으라고 하고, 손 교사가 ‘복직인사’로 교무실에 들린 땀을 고스란히 손 교사 책상에 되돌려 보내는 등 부당한 처사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다.

한편, 광주교사노동조합은 명진고 측이 손 교사에 대해 부당한 ‘뒤집 채우’를 한 것과 관련 국가인권위에 인권침해 사항 즉시 해소와 인권침해 가해자 처벌을 권고해 달라는 인권침해 긴급구제 신청을 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6년
1954~2020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2021학년도 광신대학교 신입생 모집

Passion Vision Truth

열정
꿈
진리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학 부

■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 열	학 과	모 집 단 위	모 집 인 원
인 문 사 회	신 학 과		15
	한국어교육학과		2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교정평생교육상담학 전공)		3
사 범	유아교육과		3
예 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6
	총 계		29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학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상담심리지도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정시모집 원서접수는
2021. 1. 7(목) ~ 11(월)

인터넷접수
유웨이 어플라이
www.uwayapply.com

입학문의 062)605-1114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